

강화된 대출규제에 2금융권으로 몰린 대출 수요

광주·전남 중기 비은행권 신규대출 4조1715억원...역대 최대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 45% 급감...비은행권 125.5% 급증

지난해 광주·전남 예금은행에서의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2금융권 대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비은행권 신규 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해 다음달 정부 대출 만기를 앞두고 빨간 불이 켜졌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중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신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신(대출)은 12조1264억원으로, 전년(13조3648억원)보다 9.3%(1조2384억원) 감소했다.

금융기관 수신도 10조6674억원에서 8조9766억원으로, 15.9%(-1조6908억원) 줄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금은행과 비은행권 여신 증감액을 나눠 살펴보면 은행 대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2금융권은 급증했다.

지난해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은 2조8억원으

로, 전년보다 44.9%(-1조6474억원)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 2년차였던 지난 2020년 신규 가계대출은 3조66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2019년 2억 6451억원→2020년 2조5810억원→2021년 1조 4633억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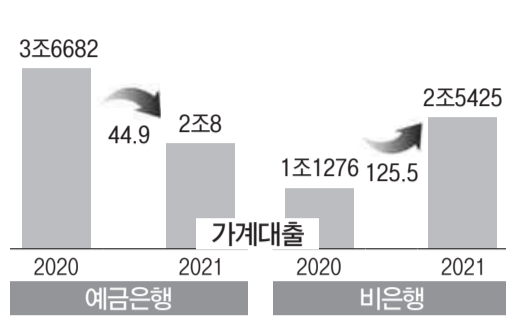
은행권 가계대출이 반토막 날 동안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2.3배 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광주·전남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2조5425억원으로, 전년(1조1276억원)보다 125.5%(1조4149억원) 급증했다.

비은행권 금융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20년 365억원에서 이듬해 8312억원으로, 무려 22.8배 수준으로 뛰었다.

■ 광주·전남 가계·중기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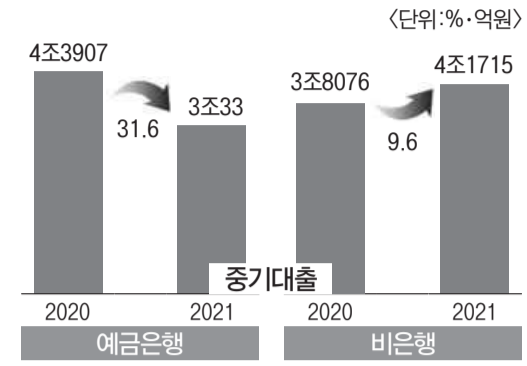
이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한 정부 대출규제 탓에 자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비은행권으로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자금 수요는 줄고 비은행은 늘어나는 양상은 중소기업 신규 대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비은행권 중소기업 신규대출액은 4조원을 돌파하며 통계를 낸 201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비은행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4조1715억원으로, 전년(3조8076억원)에 비해 9.6%(3639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2020년 4조3909억



원에서 지난해 3조333억원으로, 31.6%(-1조3876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정부의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문제를 다음달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내 비건시장 규모 209억원 "MZ세대 선호 두드러져"

국내 비건(Vegan·채식주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209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비건식품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0년 11월13일부터 지난해 11월13일까지 한 해 동안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의 비건 관련 검색량과 언급량을 분석해 핵심어를 도출했다. 소비자 조사는 전국 만 20~69세 54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공사는 국내 비건식품 시장규모는 아직 초기 단계로,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료 유형별로는 콩류가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가치소비와 동물권, 환경보호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비건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비건식품에 대한 관심은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비건식품)' 보고서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aTF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 문화콘텐츠 기업들 200억원 지원 받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설명회

광주 문화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333억원 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투자조합'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2일 오후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3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투자조합 운영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투자를 유치하려는 문화콘텐츠 기업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투자조합'은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총 333억원 규모로 결성했다.

민간자본은 133억원이 출연됐다. 오는 2025년 말까지 5년 동안 투자하고 이후 3년 동안 회수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 결성총액(333억원)의 60%인 199억8000만원 이상은 광주에 분사를 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3호 투자조합 운영사인 미시간벤처캐피탈㈜는 이날 투자조합 운영계획과 투자방향을 설명했다. 사전 신청한 16개 지역기업들은 일대 일 투자 상담을 받기도 했다. 투자설명회는 화상회의 'Zoom'으로도 실시간 중계됐다.

문화콘텐츠 산업 보증지원제도는 기술보증기금의 호남권역 전담기관인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가 맡았다. 선정된 지역 기업들은 제작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22일 오후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3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투자조합 운영설명회'에서 문화콘텐츠 기업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투자상담회는 올해 하반기 중 2차례 더 열릴 계획이다.

투자조합 운영사인 미시간벤처캐피탈㈜는 개별적인 투자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유선,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8개 기업이 외부 투자사로부터 총 59억5000만원 규모 투자를 받기도 했다.

진흥원은 투자진흥지구를 거점으로 운영 중인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맞춤형 멘토링 제공에 주력할 계획이다.

탁용석 진흥원장은 "앞서 총 100억원으로 결성된 2호 투자조합 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로 3호 투자조합이 운용되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기업들의 투자 유치 희망수요가 많은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진흥지구를 거점으로 운영 중인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맞춤형 멘토링 제공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투자조합 관련 문의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062-610-9503)으로 하면 된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심리 6개월 만에 기준치 아래 '뚝'

2월 99.5P...전달보다 1.8P↓ 가계저축 92·수입 97·지출 106P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앞으로 6개월 뒤 가계저축은 늘고 가계부채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면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 만에 기준치 100 아래로 떨어졌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월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에 따르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2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가 99.5로 전달과 비교해 1.8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지수는 103.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9월 100.0을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기준치를 넘긴 지수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2020년 4월 74.5로 바닥을 찍은 뒤 재유행 여부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가 같은 해 89.3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월 91.1로 90을 회복한 뒤 5월에는 101.3으로 기준치를 넘어섰고 6월 106.9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8월(99.6)에 다시 100 밑으로 내려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오르내리는 등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가 반영됐다

는 분석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조사 항목 중 현재 생활 형태,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다.

100을 넘으면 2003~2020년 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가계저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가계저축 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 증가한 92를 나타냈다.

6개월 후를 전망하는 가계저축전망도 2포인트 늘어난 반면 현재가계부채 지수는 2포인트 전달보다 하락했다. 가계부채전망 지수는 1포인트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95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97)과 소비지출전망(106)은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내려갔다.

가전 등 내구재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은 전달보다 3포인트나 하락했고, 의류비도 1포인트 떨어졌다.

여행비 지출전망은 지난해 11월 96에서 12월 86, 올 1월 86, 2월 85 등으로 내림세를 지속했다.

물가수준전망 지수는 143으로, 전달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가격전망은 전달보다 5포인트 내린 101을 나타냈다.

향후경기전망(92), 취업기회전망(90)도 각 1포인트 하락하는 등 대부분 항목에서 지수가 내려앉았다.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전남 도시 가구 중 600가구(응답 521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